

전남도, 2026년 기초생활보장 확대 3천명 이상 추가 혜택

생계급여 월 12만 7천원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10% 완화

전라남도는 202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5천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609만 8천 원보다 6.51%, 약 40만 원 오른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5만 5천 원(76만 5천 원 -82만 원), 4인 가구는 12만 7천 원(195만 1천 원 -207만 8천 원) 인상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재산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고 있는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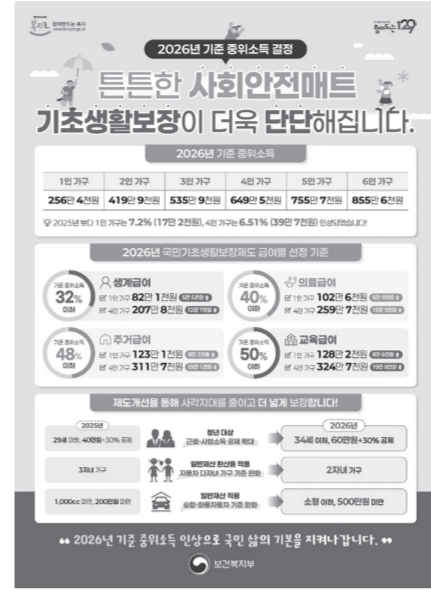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4급기준)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2만 1천 원, 4인 가구는 월 3만 2천원 인상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으로 사용)는 올해보다 평균 6%

인상을 연간 초등학생은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대폭 인상에 3천 명 이상의 도민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에 새롭게 포함될 것”이라며 “더 두텁고 촘촘한 복지 실현을 어려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5년 6월 말 현재 8만 5천992가구, 11만 3천 745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광양경제청, 중국기업 해외진출 투자설명회 참여 및 발표
중국국제무역투자상담회 홍보부스 운영 및 투자상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근, 이하 광양경제청)은 9월 8~10일 중국 사면에서 열린 제25회 중국국제무역투자상담회에 참가하여 홍보부스 운영, 일대일 투자상담, 중국기업 해외진출 투자설명회 발표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중국국제무역투자상담회는 중국 최대 규모의 투자무역 상담회로 전 세계 100여개에서 소재·부품,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분야 등 1천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광양경제청은 전남도, 전남도 중국 사무소, 광양시의 공동으로 참가하였고 홍보부스를 방문한 잠재투자기업에게 전남도와 광양만권의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등 20개 사와 투자상담을 가졌다.

또한 9월 9일에 열린 중국기업 해외 진출 투자설명회에서 2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와 광양경제청의 투자환경과 우대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서 김차진 광양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많은 중국기업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으며, 그 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는 크고 작은 중화권 기업 24개 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오늘 중국기업 해외의 진출 투자설명회를 기회로 양국 간 투자 협력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사면 방문기간 중, 김 가금 식품기업인 리리그룹(LiLi Group)과 태양광 구조물 생산기업인 구맥스(GOOMAX)를 방문하여 밀착 투자상담을 진행하였다.

광주·전남 RISE 초광역 지·산·학·연 협력 본격화

광주·전남RISE센터-광주·전남TP-전남인평일 업무협약

광주·전남RISE센터는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광주·전남 RISE 초광역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RISE 초광역 지·산·학·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5급3특 기반 초광역 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추진 ▲성장엔진 시범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5급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발맞춰 추진됐다. 광주·전남이 초광역권 차원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광주테크노파크, 전남인재평

생교육진흥원, 광주·전남RISE센터는 ‘초광역 혁신인재 양성과 RISE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협약에 따라 ▲RISE기본계획과 연계한 양·시·도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기업지원, 인재양성, 평생교육, 현장실습 등을 위한 시·도 간 연계 협력 ▲광주·전남 주력산업과 관련한 맞춤형 산학협력, 초광역 인재양성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두 협약으로 지역과 대학, 산업,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초광역 혁신 플랫폼 구축, 지역기업 성장과 주력산업 육성 지원, 맞춤형 인재양성과 청년 정착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이 함께 미래 인재를 키우고, 교육과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연결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모범적인 초광역 협력

광주·전남 5곳서 9월 동행 축제 열린다

광주전남중기청, 추석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골목형상점가와 야시장 5곳에서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9월 동행 축제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한다’는 취지 아래 소비자에게는 즐거움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과 야시장을 찾으면 지역 특산품과 생활용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 공연을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보인다.

전남대학교 상대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찐으로 있다, 맞으로 만나’라는 주제로 매주 금·토요일 야시장을 연다. 광주 대표 음식인 상추튀김 판매와 더불어 경품이벤트를 마련한다.

남광주시장에서는 오는 12일 ‘동행축제’에 이어 26-27일 ‘가을바다 축제’를 통해 풍성한 먹거리와 공연을 선보인다.

매주 토요일 광주 남구 군분로에서는 ‘글로벌 토요일야시장’이 열리며, 무안전통시장에서도 ‘캠핑 품은 황도골 야시장’이 펼쳐진다.

또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도 오는 20일 ‘밤소풍준을 준비해 시민들을 맞는다.’ 행사가 열리는 각 시장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살거리를 준비했다.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지역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제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동행축제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8월 고용률 광주 상승·전남 하락... 취업자 2만명 ↑·8천명 ↓ ‘희비’

호남통계청 ‘고용동향’ 분석... 실업자도 3천명 감소·2천명 증가로 엇갈려

8월 광주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 명 증가한 반면, 전남은 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광주시 고용률은 61.7%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8만 7000명으로 지난해 비해 2만명 증가했으며 15~64세 고용률

(OECD비교기준)은 66.8%로 1.5%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6000명, 4.8%), 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 7.6%), 건설업(5000명, 8.1%) 등에서 증가했으나 농림어업(-6000명, -24.9%), 광공업(-4000명, -3.7%)에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 7000명(3.8%), 임시근로자는 9000명(7.0%),

일용근로자는 4000명(15.7%) 각각 증가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 명(-6.5%), 무급가족종사자는 1000명(-8.2%) 각각 감소했다.

8월 광주시 실업률은 2.2%로 지난해 비해 0.5%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 8000명으로 3000명 감소했다. 8월 전남도 고용률은 66.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100만 4000명으로 8000명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5000명, 22.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000명, 2.6%), 광공업(7000명, 7.0%)에서 증가했으나 농림어업(-2만 1000명, -10.0%),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6000명, -8.5%), 건설업(-2000명, -2.8%)에서 감소했다.

8월 전남도 실업률은 2.1%로 지난해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2만 2000명으로 2000명 증가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